

사회

호남고속도로 사망률 최고

차 1만대 당 사망자 8.87명…전남도 교통안전 평가 최하위

보성 군단위 가장 높고 진도군은 교통사고 청정지역

호남고속도로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선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8.8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체 및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손해보험사 및 공체조합 통계)을 분석한 결과, 호남선이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8.8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이어 남해선(5.83명), 중부내륙선(4.75명), 88선(3.60명), 중부 및 통영대전선(각 3.46명), 서해안선(2.26명), 영동선(2.21명), 경부선(1.93명), 서울외곽선(1.14명), 중앙선(0.92명) 순이었다. 이는 고속도로 연장 및 교통량을 고려한 사망자(전체 평균 3.5명)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이와 함께 전남이 교통안전 최저

수준인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전남은 16개 광역시·도 중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교통사고율)가 3.8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2.41명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경남 남해·보성·경남 창녕의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진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아 교통사고 청정지역으로 꼽혔다.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교통 안전도를 평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로 활용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해 임새주 최고 소주

국내 소믈리에들 선정

보해 임새주가 국내 소믈리에들이 뽑은 최고 소주로 선정됐다. 21일 보해양조(주)에 따르면 보해가 생산한 임새주(19.5도)가 '제12회 와인 소믈리에 학술 심포지엄·전통주(희식 소주) 품평회'에서 총점 1230점 만점에 87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경상도의 '무학'에서 내놓은 '화이트 소주'(19.0도)와 서울·경기지역의 '롯데'에서 만든 '처음처럼 룰(Cool·16.8도)'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보해 관계자는 "지하 253m에서 뽑아온 천연암반수에 유기농 메이플 시럽을 혼유한 임새주가 마시기 가장 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맛과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어르신들의 인터넷 실습

21일 전남대 자연과학대에서 광주 북구청 주최로 열린 실버 인터넷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검찰, 경찰관 5명 전원 영장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력5팀 팀장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

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원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데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찰관과 구속 피고인이라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상부 지휘 라인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8월 말 교육 위원회 폐지 및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이유로 고교생 학원 고교시간 단축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시교육위원회는 행정기구 개편, 수수료 인하조례 등만 상정했을 뿐 학교교습 시간 단축 조례안은 제외했다. 도 교육위원회도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었으나 보류증인 학원시간 단축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논란이 많았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교육위원회 상정 때도 일부 위원들이 학원 관계자 생존권과 학생 교육권 확보 등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원 업계 눈치 보기, 학원 운영하는 동료 행정기 등의 지적도 일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원시간 단축 조례 무산

시교위 임시회서 빠져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추진한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정까지 꽤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2시간에 단축한 내용을 담은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이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에서 모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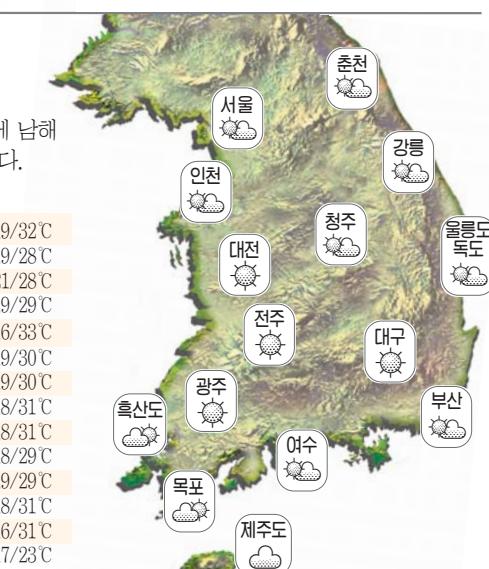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시교육위원회는 행정기구 개편, 수수료 인하조례 등만 상정했을 뿐 학원교습 시간 단축 조례안은 제외했다. 도 교육위원회도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었으나 보류증인 학원시간 단축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확고한 안보의식 평화통일 초석된다

오늘 날씨

해물 05시 18분 해진 19시 50분

달 15시 55분 달진 01시 37분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남서~서	0.5~0.5m	●	●	●
남부	일비다	남서~서	0.5~1.0m	●	●	●
남해 서부	일비다	남서~서	0.5~1.0m	●	●	●
남부	만비다	남서~서	0.5~1.5m	●	●	●
남해 서부	만비다	남서~북서	0.5~1.0m	●	●	●
남부	만비다	서~북서	0.5~1.0m	●	●	●
남해 서부	만비다	서~북서	0.5~1.5m	●	●	●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10:14	03:44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23:26	15:56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05:17	11:34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22:31	22:38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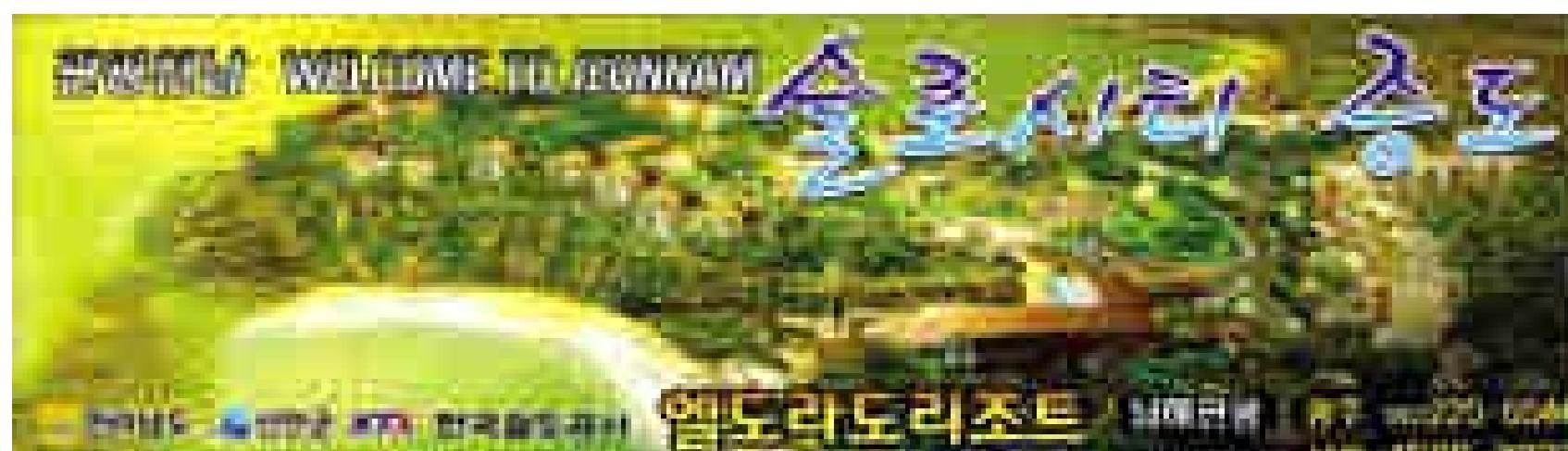
오병문 전 교육부장관 별세



제를 도입하면서 초대 직선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1993년에는 제33대 교육부장관에 임명됐다.

교육부장관 시절에는 전교조 해직 교사 1200명을 복직시켜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정년 퇴임 이후에도 각종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계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민소는 전남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23일 학교장으로 치러진 다. 문의 062-220-6981.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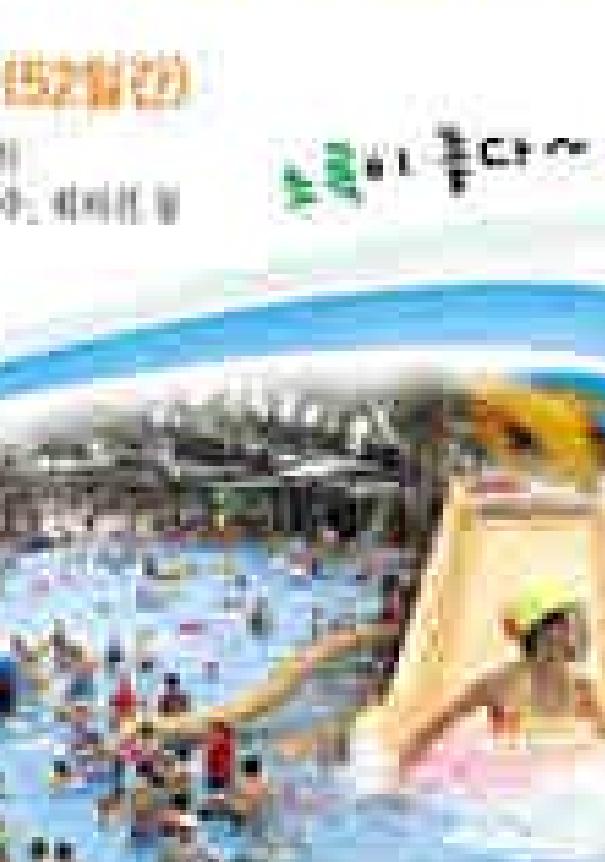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지,
“녹자수도 보성”으로 GO, GO!**



체육관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온수탕
온수탕
온수탕
온수탕



온수탕
온수탕
온수탕
온수탕

제3회 수영장 개장 7.2 ~ 8.22(화)

- 허니문 1,000원/박 티켓, 비빔마운, 편년도, 풍수정
- 놀이터입 1,000원/박 티켓, 헤이리, 스파리스탕, 투숙객수, 티켓번호
- 키팅판정 1,000원/박 티켓번호